

# 김산호 회화극본 **부처님** The story of Holy Buddha

# 부처님

제1화 사카족의 탄생 ①



## 감히 “부처님”을 그리면서

불교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함께 숨쉬며 살아온 우리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옛 불교인들이 성인의 모습을 지나치게 허황된 모습으로 형상화시키고 과대 포장하는 바람에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마치 전설이나 신화 같은 인식을 갖게 하는 역효과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저 순수하게 인간 싯달타의 발걸음을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가 위대한 부처님이 되는 과정을 훨씬 더 진실되고 설득력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나는 이 믿음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회화극본(繪畫劇本)으로 꾸며 보려 한다.

부처님 일생을 그리는 이 엄청난 성전(聖典)의 제작은 철저한 고증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기에 부처님의 활동무대를 현지답사해 가능한 세밀한 스케치로 자료를 삼았다. 이 일은 본인의 민족사 복원서인 <대조선제국사(大朝鮮帝國史)>를 그리면서 수년간 만주지방을 헤맨 경험이 있어 꽤나 자신이 있었던 일이다. 그저 현장에 가서 성전에 기술된 대로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신문기자가 현장리포트를 쓰듯 하면 될 것같이 생각되었다.

그러하여 수많은 부처님의 유적지를 돌아보며 돌 조각이나 색 바랜 그림의 흔적을 여러 동굴 속에서 찾아내 그것들을 세세하게 분석하며 스캐치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료들을 놓고 막상 원고를 그리려다보니 부처님 시대의 생활습관이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의 사람들로서, 모든 것을 그들이 익숙해진 서양식 윤리관과 도덕적 관념의 잣대로 바라볼 것이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여인네들의 노출 등이 그것인데, 그들의 입에 오르내림이 두려워 나체의 여인들에게 근거에도 없는 옷을 입혀 놓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

사실 부처님의 유적지에서 발견한 조각상들 중엔 상당량의 ‘미투나(男女合歡)’ 조각들이 보였다. 처음엔 평생동안 나부(裸婦)들을 그려온 나에게도 쳐다보기가 좀 민망스러웠다. 그러나 차츰 깊은 연구를 거듭하면서 그 속에 놀라운 차원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이 깃들여져 있음을 보고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슬람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중세까지 인도인의 사고방식에는 아직 성(性)에 관한 터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녀간의 육체교합도 일상적인 행위, 즉 노동의 행위,

식사의 행위, 혹은 신(神)에게 기도하는 행위처럼 자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로 취급됐다. 오히려 힌두교의 일부 종파에서는 교합에 의한 희열을 참다운 구제에 이르는 정상(頂上)의 차원으로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B.C.1500년경의 옛 성전인 베다(veda)의 설교 속에는 반드시 관능적인 부분이 있었다. 저 유명한 ‘카마수트라’를 비롯하여 다른 중세 인도의 서사시속에서도 관능적인 묘사는 상징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인들은 예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생활상을 선입감 없이 보이는 대로 조각해 남겼고, 나는 그 조각상들을 통하여 옷차림 등을 복원해 부처님 당시의 모습을 재현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될 수 있는 대로 순수한 회화적인 화법을 사용하여 좀더 높은 차원의 결과를 얻어 보는 것 뿐이다.

부처님 생존 당시의 복장이나 건물 등 문화적인 상황은 그런 대로 파악이 되었으나, 부처님의 일생을 그려야 하는 나에게 성인의 참모습을 찾아내야 하는 또 다른 시련이 있었다. 인도 현지에는 과연 불교의 발상지답게 부처님의 모습을 담은 수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거의 모두가 부처님이 입멸하신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성인의 모습으로 재현한 것

들이다. 당시의 아리아인들은 부처님의 형상을 깊고 큰 눈, 그리고 높은 코를 강조하고 그들 종족의 모습처럼 곱슬머리로 만들어 놓아 도저히 부처님의 참모습으로 보기에 옛 문헌들의 기록과 너무나 틀리게 표현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종교와 정치적으로 보아 아리아인족으로 대표되는 ‘인도(India)’라는 지명이 산스크리트어로 ‘달빛이 비치는 땅’(달을 ‘Indu’라 하고 ‘Indus’는 달빛이 비추고 있는 모습이라는 뜻으로 달을 상징 하는데 반하여, 부처님의 종족인 ‘사카족’은 태양을 숭상하던 태양족이라는 사실이다. 또 인종적으로 보아도 옛 사카족의 영토였던 지금의 티베트지역 사람들이 모두 동양적인 용모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도의 지배족인 아리아인족은 중앙아시아 계열의 서구적인 형상을 하고 있어 확연히 구별된다. 바로 이런 점이 부처님의 참모습을 찾아내는데 엄청난 혼란을 주기도하고, 또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다.

감히 얕은 제주만 믿고 부처님의 성전제작에 겹겹이 덮여진 나눈 처음부터 모진 시련을 겪으며 이미 예고된 험난한 여정을 강행하게 되었다.

권夢 김산호



소위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은 북쪽의 중국문화권과 남쪽의 인도문화권을 확연히 갈라놓은 분수령을 형성하고 있다. 히말라야는 크게 두 줄기의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북쪽 산맥은 대단히 가파르고 험준한데 비해, 남쪽산맥은 비교적 완만하여 티베트를 중심으로 중국이나 인도문화권에서 독립된 또 하나의 독특한 문화권을 이루고 있다.

다. 이점은 산맥의 건너편에 있는 중국쪽에서도 보이는 현상이어서 흥미롭다.

인도에 대한 히말라야 산맥의 결정적인 공헌은 매년 6월 중순부터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고온 다습한 계절풍을 막아 되돌려 세우며 삭막한 인도땅에 비를 내려주는 것이다. 이 비들이 모여서 인도의 생명수와 같은 인더스(Indus)강과 갠지스(Ganges)강을 만들게 된다. 인더스강이 서쪽으로 흘러 아라비아해로 들어가는데 반하여 갠지스강은 동쪽의 벵골만으로 흐른다. 이리하여 이 두 강을 끼고 찬란한 인도 문화가 꽃피우게 된 것이다.

실산(히말라야)의 남쪽, 성지 룬비니가 있는 네팔지역의 사카족 출신인 부처님은 지역적으로 근접한 인도땅으로 내려와 불교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주요 활동무대가 바로 갠지스 강 줄기의 유역인 것이다.

‘히말라야’라는 이름의 어원이 우리 옛말인 회(廻) 마리(머리) 산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하지 차츰 밝혀보기로 하자. 히말라야 산맥은 그 험준한 산세(山勢) 때문에 외래민족(外來民族)의 침입이 용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침입에 성공한 외래민족의 탈출 또한 쉽지가 않아서 대체로 그들의 문화와 함께 인도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빨려 들어가며 토속문화와 동화(同化)되고 마는 특징이 있



중앙아시아의 시베리아 남쪽일대와 투르케스탄(Turkestan) 일대에 살고 있던 일단의 유목민족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아리아인족이라 한다. 기원전 13세기 경, 아리아인족의 일단이 히말라야산을 넘어, 펀자브 지방으로 침략해 들어왔다. 아리아인족은 인류 3대문명의 하나인 인더스 문화를 일으켰던 문명한 현 지인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때까지 번영해 왔던 인더스 문화를 철저하게 파괴하며 정복자들의 새로운 아리아문화를 꽃피워갔다.

카스트의 최상급은 ‘브라만(Brahman)’ 계급인데 이들은 신과 통하는 무당과 같은 계급으로 신(神)에게 제사 드리는 의식을 담당하고 씨족의 안녕을 지키는 행위 일체를 담당하는 사제(司祭) 계급인 것이다. 씨족의 제정일체(祭政一體)를 책임지는 브라만은 과연 씨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만한 역량이 있어야만 했다. 이때 이들에겐 별저 리그베다(Rig-Veda)라 불리는 인류 최초의 성전(聖典)이 있어서 그들의 신을 찬미하는 엄격한 법칙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브라만’의 뒤를 이어 ‘크샤트리아’ 계급이 있는데 브라만은 종교적인 특수계급이므로 실제의 지배계급은 바로 이 크샤트리아로 주로 무사들이었다. 그 아래 보통 평민은 ‘바이샤’ 계급이며, 사회의 최하층인 노예 계급을 ‘수드라’라 불렀다.

아리아인문화는 한마디로 ‘카스트(Caste)’로 정리할 수가 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카스트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정복자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피정복민족인 원주민들을 일거에 노예로 전락시켰음을 뜻하는 것이다. 최초의 아리아인들은 흰 피부에 높은 코, 그리고 압도적으로 큰 몸집으로 오늘날의 유럽인들과 비슷하였다. 그에 반하여 인도의 원주민들은 검은 피부에 왜소한 체격으로 그 피부의 색깔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카스트를 구별할 수 있었다.

